



아프라스 2026 성료...규제조화·수출지원 '실질 성과' 도출

-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 채택으로 글로벌 표준 본격 논의 합의
- 뉴질랜드와 MOU 체결 및 전략적 양자 회의 통해 수출 장벽 해소 기대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옵저버 추진, 아태 협의회 위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고, 아태지역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선도하는 전환점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기간 중 주요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체결한 수산물 위생 협력 양해각서(MOU)는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통관 절차 간소화 효과와 함께 안전관리 협력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전자위생증명서를 수산물까지 확대하게 되는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미국 식약처(FDA) 및 농무부(USDA), 캐나다 식품검사기관(CFIA), 태국 공중보건부(MoPH) 등 주요국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식품을 넘어 의료제품과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 양자회의 주요 내용 >

- ▲ (對 미국) 한영 이중언어 표시 합리적 개정 및 열처리 돼지고기가공품 수출허용 요청
- ▲ (對 캐나다) 한국산 축산물 가공품 수출 신속 진행 요청
- ▲ (對 태국) 의료제품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 제안

이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 담당자들과 국내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K-푸드의 수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 하기도 했다.

< 비즈니스 미팅 주요 내용 >

- ▲ **(對 인도네시아)** 제품(건기/일반식품) 등록 관련 애로사항 건의, 장류 등 소스류 검사성적서 제출 요건 완화 요청, 할랄 의무화 유예 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 ▲ **(對 말레이시아)** 김제품 카드뮴 기준 완화 및 유제품 제조시설 등록 진행 확인 요청, 알룰로스의 당류 제외 관련 유권해석 요청

아프라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옵저버 자격 획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프라스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공식 협의체로서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글로벌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14개국 식품규제기관이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대응 ▲재활용 플라스틱 안전관리 지침 마련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가 담겼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프라스 2026은 아태지역 식품 안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아프라스가 글로벌 식품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중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그룹을 통해 협력과제를 구체화 하고, 아프라스 사무국 운영을 통해 차기 아프라스 2027에서 규제 조화 성과를 가시화하여 도출할 계획이다.

<붙임>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 1부.

담당 부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3-719-1351)
		담당자	사무관	김현진 (043-719-1354)
협조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협조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안동성 (043-719-2169)
협조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강윤숙 (043-719-2240)
협조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 장	장문익 (043-719-2411)
		담당자	사무관	안현주 (043-719-2415)

국민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 100년 보여갈 안심기준



1 영문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APFRAS Seoul 2026 Declaration

We, the senior representatives of food regulatory authorities gathered in Seoul on May 11-12, 2026,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llab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we face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ith regulating food.

The theme of APFRAS 2026 is ‘A Strategic Leap Towards the Asia Pacific Food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Partnership’. Food safety should be understood as a shared, multisectoral responsibility that no single country, organization, or sector can achieve alone. To proactively address the changing environment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important to share the benefits of digitalization and integrate new technologies into food safety management, and enhance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Following the APFRAS 2025, we discussed about the global food regulatory environment analysis and agreed to facilitate the use of CES food regulation database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enhancing access to regulatory requirements of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the senior representatives of food regulatory authorities also agreed to support development of guidelines on recycled plastic materials for food containers and packaging, and on safety management of food and drink for international events.

Prior to the Summit, there have been working group discussion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food composition database for personalized nutrition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of food sold online,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activities are planned to address emerging issues including new approach methods (NAMs), digital shifts in food safety management.

We recognize that the APFRAS 2026 has served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affirm our vision and goals. With support from the Secretariat, APFRAS will continue to support strategic cooperation to ensure safe food trade within the region and address common challenges in the food sector. The next APFRAS will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7.

2 국문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APFRAS Seoul 2026 Declaration

우리 식품규제기관장들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모여 식품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아태 지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번 아프라스 2026의 주제는 ‘아태 식품 규제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입니다. 식품안전은 어느 한 국가, 기구, 분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의 다분야적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변화되는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화 등 신기술 접목의 이점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규제 조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라스 2025 회의에 이어서, 우리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국가간 식품안전 규제 요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CES 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식품규제기관장들은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국제 대규모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아프라스 회의에 앞서 정밀 영양관리, 온라인 판매 식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실무그룹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추후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새로운 위해평가 방식 등 새로운 이슈에 관한 실무그룹 논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아프라스 2026 회의가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프라스는 사무국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안전한 식품 무역을 보장하고, 식품분야 공통과제에 대응하는데 전략적 협력 증진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2027년 아프라스 회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